

[居官四箴] 벼슬살이하며 지켜야 할 네 가지 잠언

女汚不潔 아녀자의 더러움은 깨끗하지 않아
絲染未白 실도 한 번 물들면 희게 되지 않네
名節難持 명절은 지키기 어렵고
神明可欺 신명은 속일 수 있다네
省事寡慾 일을 덜고 욕심을 줄여
頤神養德 정신과 덕을 길러야 하리
四知一琴 사지에 거문고 하나
淸風古今 고금에 맑은 바람부네
“이상은 자신을 청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大德曰生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이라 하니
仁心茁萌 인자한 마음에서 싹튼다네
親親愛民 친척부터 친애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與物爲春 외물과 봄이 된다네
飢溺猶己 굶주리거나 물에 빠진 백성을 자기같이 여기고
痛痒一視 아프거나 가려움도 똑같이 보아야 하네
胡忍不忍 무슨 어려움도 참지 못하랴
瘠民肥身 백성들은 파리한데 제 몸만 살찌웠네
“이상은 백성을 인자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公聽斯明 공무를 들음이 명확해야 하니
偏信闇生 한쪽만 믿으면 어둠이 생기네
平心虛己 마음을 고르고 자기를 비워
衆善攸止 선행에 머물러야 하네
用智徇私 지모를 쓰고 사심에 따르면

邪佞抵巇 사악과 아침이 빈틈으로 밀려드네
本地日月 본래 해와 달을
毋爲慾蝕 욕망으로 먹게 하지 마라
“이상은 공정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分憂百里 백 리 땅으로 근심을 나누니
食豐衣侈 음식 풍성하고 의복 사치스럽네
縷絲顆粒 한 올의 실과 한 톨의 쌀도
盡出民力 백성의 힘 다해 생산했네
怠事曠官 사무를 게을리하고 벼슬자리 비우면
宜刺素餐 마땅히 소찬이라 풍자하네
警枕汗背 등근 베개로 경계하니 등에 땀이 나네
蒞事敢懈 공무에 임하여 감히 게을리하랴
“이상은 부지런히 일에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絲染未白 실도 한 번 물들면 희게 되지 않네 :

사람의 심성이 환경에 따라 변하면 회복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이다. 실을 염색하는 것을 보고 묵자(墨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푸른 물을 들이면 푸르게 되고 누런 물을 들이면 누렇게 되니, 넣는 데에 따라 그 색이 변하는구나.”라고 하였다. 《墨子 所染》

大德曰生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이라 하니 :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지위라 한다.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親親愛民 與物爲春 친척부터 친애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외물과 봄이 된다네:

먼저 가까운 친척부터 친애(親愛)하는 것이다. 《맹자》 〈진심상(盡心上)〉에 “친척을 친애하고서 백성을 인애하며 백성을 인애하고서 물(物)을 사랑한다.” 하였다. 물은 동식물(動植物)을 가리킨다.

飢溺猶已 굶주리거나 물에 빠진 백성을 자기같이 여기고 :

주(周)나라의 시조인 직(稷)은 농사에 큰 관심이 있어 순(舜)의 후직(后稷)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경종법(耕種法)을 가르쳤다. 이 때문에 흉수 피해로 곡식을 못 먹던 백성들이 다시 곡식을 먹게 되었는데 맹자는 “천하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직(稷)은 마치 자신이 굶주리게 한 것처럼 여겼다.” 하였다. 고대 하(夏)나라의 우 임금의 일찍이 순의 신하가 되어 9년의 흉수를 다스리느라 손발에 못이 박혔으며, 세 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주(九州)의 백성들이 살 길을 얻었으므로 순(舜)은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마침내 제위(帝位)를 물려줬는데, 맹자(孟子)는 “천하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우는 마치 자신이 빠뜨린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였다. 《書經 益稷》 《孟子 離婁下》

衆善攸止 선행에 머물러야 하네 :

대학의 《대학장구》 경 1장에서 말한 “지극한 선에 그친다. [止於至善] ”라는 뜻이다. 《시경》 〈생민(生民)〉에 “맨 처음 사람을 낳은 분은 바로 강원이시니, 어떻게 사람을 낳았는가 하면, 정결히 제사하고 교매에 제사하여 자식이 없음을 제액하시니, 제의 발자국을 밟아 크게 여기고 멈춘 바에 흠뻑하여 임신하고 몸조심하여 낳고 키우시니, 이가 후직이시다. [厥初生民 時維姜嫄 生民如何 克禋克祀 以弗無子 履帝武敏 歆攸介攸止 載震載夙 載生載育 時維后稷] ”라고 하였다.

分憂百里 백 리 땅으로 근심을 나누니 :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다는 말이다. 임금의 근심을 나눈다 [分憂] 는 뜻으로, 지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찬(素餐) :

시위소찬(尸位素餐)의 준말로, 자격도 없이 벼슬자리를 차지하고서 녹만 축낸다는 뜻인데, 흔히 겸사로 쓰인다.

警枕汗背 등근 베개로 경계하니 등에 땀이 나네 :

원문의 경침(警枕)은 나무를 공처럼 둥글게 깎아 만든 베개를 말한다. 약간 잠이 들기만 하면 그 목침(木枕)이 굴러서 바로 깨기 때문에, 옛날에 사마광(司馬光)을 비롯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용했다.

자료출처 : 한국고전종합DB